

독일 주류시장 동향 *

이 종 혁
(한국주류산업협회 연구본부 주임연구원)

1. 주류소비 동향

1.1. 순알코올 소비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2013년)에 따르면 2009년 독일의 1인당 알코올소비량은 연간 11.7리터로 나타난다. 유럽 주요국들의 1인당 알코올 평균 소비량이 약 10리터임을 볼 때 독일의 알코올소비량은 다소 높은 편이다. 34개 OECD 회원국가 중 유럽은 26개국이 가입하였다. 이중 알코올 소비량 정보가 제시된 22개국을 기준으로 보면 독일은 6위 수준이다.

표 1 2009년 OECD유럽국가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

국가명	1인당 알코올 소비량 (리터)
룩셈부르크	15.3
프랑스	12.3
오스트리아	12.2
체코	12.1
에스토니아	11.9

* (koonei@naver.com, 02-3471-8606).

표 1 2009년 OECD유럽국가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 (계속)

국가명	1인당 알코올 소비량 (리터)
독일	11.7
헝가리	11.5
스페인	11.4
아일랜드	11
슬로바키아	10.7
슬로베니아	10.5
폴란드	10.2
영국	10.2
덴마크	10.1
스위스	10.1
핀란드	10
네덜란드	9.4
그리스	8.2
스웨덴	7.3
이탈리아	6.9
노르웨이	6.7
터키	1.5
평균	10.05

자료: OECD.statextracts(2013.11.22기준); KALIA

그림 1 독일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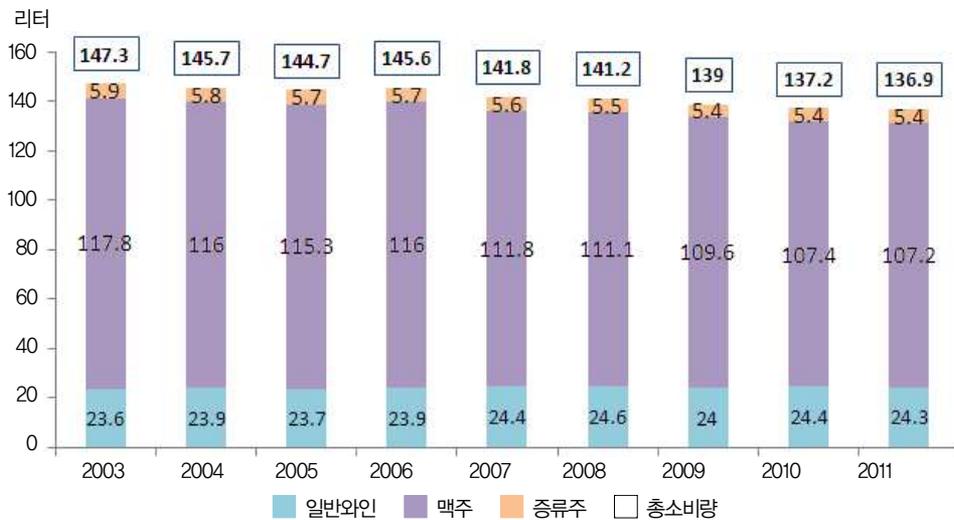
자료: OECD.statextracts(2013.11.22기준).

1인당 알코올 소비량으로 독일의 술 소비량 수준을 살펴보면, 1970년대 중반부터 이미 알코올 소비량이 감소세로 접어들어 술 소비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중반에는 알코올 소비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2. 실질 주류소비량

알코올 소비량은 전체 술 소비량을 순 알코올 양으로 환산한 값이어서 실제 마시는 양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 바로 1인당 실제 술 소비량이다. 이는 주류의 종류, 도수에 상관없이 얼마만큼의 술을 마셨는지를 총량적 측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독일국민은 한 해에 연평균 약 137(2011년 기준)리터의 술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약 10년 동안 독일 국민의 연평균 실제 술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실소비량을 기준으로 볼 때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약 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 독일의 1인당 실 주류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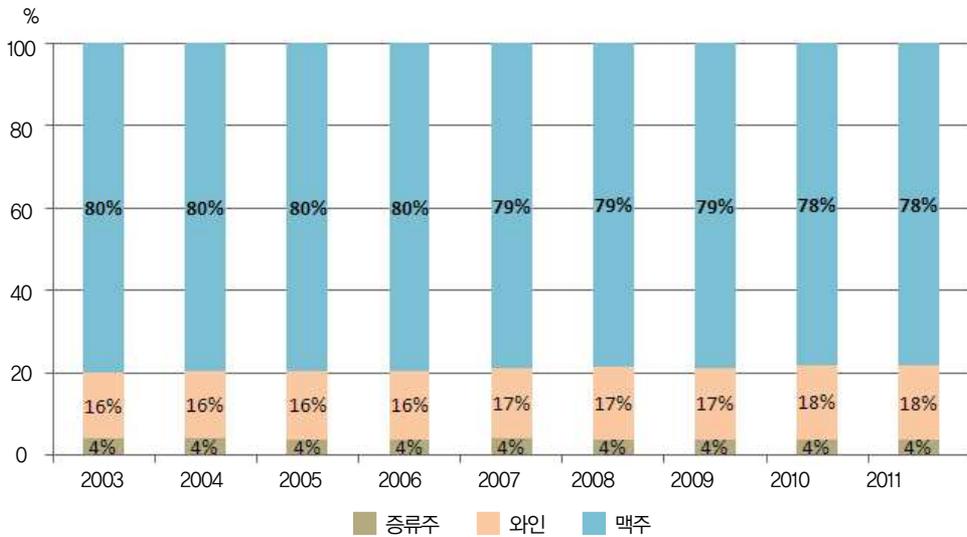


자료: Deutscher Wein Statistik 2012/2013.

1.3. 주종별 시장점유율

맥주, 와인, 증류주의 1인당 실제소비량 기준으로 독일주류시장의 점유율(2011년 기준)을 살펴보면 맥주가 전체의 80%로 가장 높다. 그리고 와인이 18%, 증류주가 4%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약 10년 간 주류시장의 변화상황을 보면 맥주시장이 소폭 감소하고 있고, 와인시장은 약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증류주는 4%대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1인당 실소비량 기준 주류시장 점유율



자료: Deutscher Wein Statistik 2012/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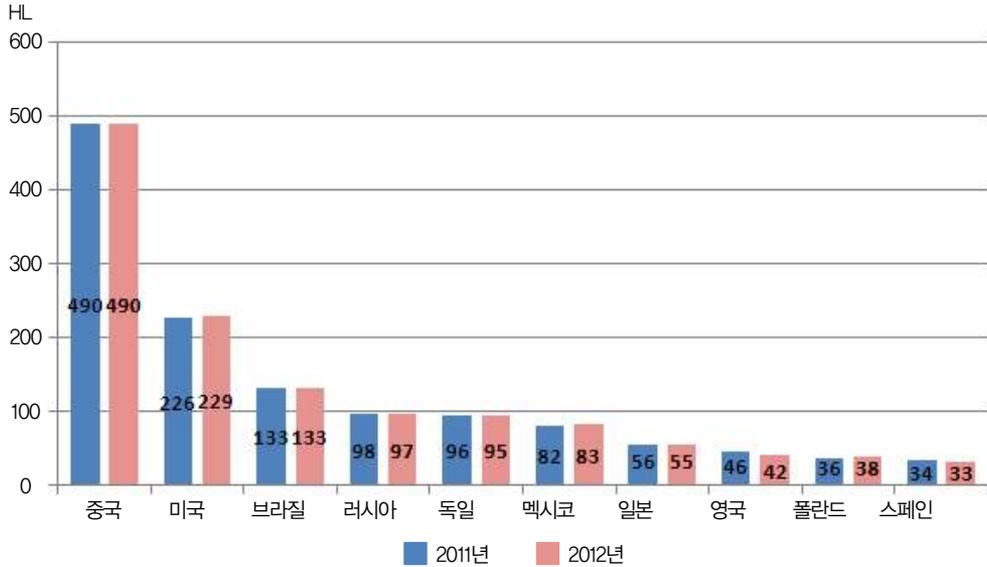
2. 맥주 공급 및 소비 동향

2.1. 맥주생산 현황

독일은 대표적인 글로벌 맥주생산국이며 그에 뒤지지 않게 맥주소비량도 높은 국가이다. 독일은 중국, 미국, 브라질, 러시아에 이어 전 세계 맥주생산국가 중 5번째로 연간 생산량이 많은 국가이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중국에서 생산되는 맥주가 압도적으로 많고, 유럽국가 중에서는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독일의 맥주생산량이 많다.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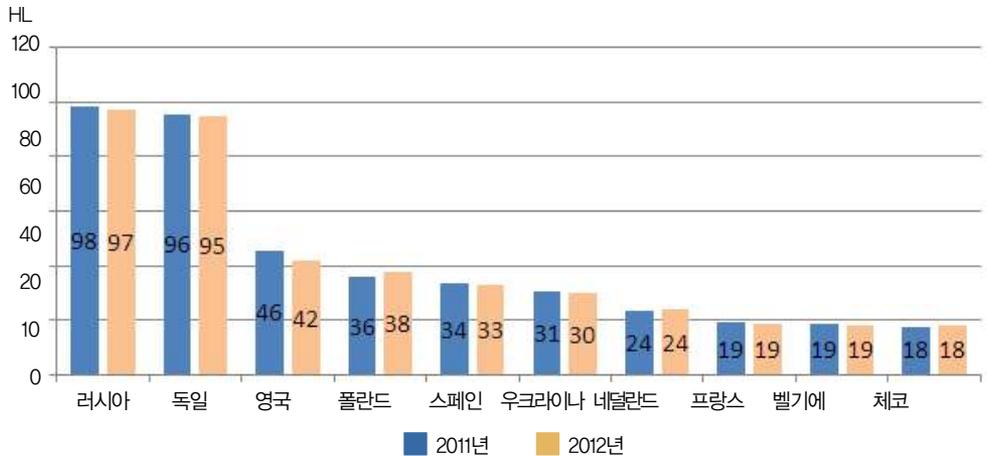
국의 맥주생산량은 2012년도 약 490헥토리터이며, 미국은 중국의 절반 수준인 약 230헥토리터를 생산하였다. 이러한 수준과 비교하면 독일의 맥주생산량은 낮은 수준이지만 세계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세계 6위로 꽤 높은 수준이다.

그림 4 글로벌 상위 10개 맥주 생산국과 맥주생산량



자료: Barth-Haas Group.

그림 5 유럽 상위 10개 맥주 생산국과 생산량



자료: Barth-Haas Group.

유럽국가 중에서 러시아의 맥주생산량이 지난 2년 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러시아의 생산량 수준은 독일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유럽 내의 맥주 생산국으로서 독일의 위상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2.2. 맥주소비 연왕

2.2.1. 순알코올 소비량 기준

독일은 생산량만큼이나 맥주 소비수준도 높은 국가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¹⁾에 따르면(2011년) 독일국민이 맥주를 통해 섭취한 1인당 순알코올량은 연간(2005년 기준) 6.22리터이다. 이는 WHO가 알코올 소비량을 관리하는 188개국 중 7위에 해당한다. 독일보다 맥주를 많이 마시는 국가는 체코,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등이다. 전통적으로 맥주가 유명한 국가 중 영국, 네덜란드, 미국의 맥주를 통한 순알코올 소비량은 각각 4.93리터, 4.72리터, 4.47리터로 독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2005년 WHO 주요국 1인당 맥주 소비량

WHO 가입국	맥주기준 알코올소비량	WHO 가입국	맥주기준 알코올소비량
팔라우	8.68	미국	4.47
체코	8.51	헝가리	4.42
아일랜드	7.04	캐나다	4.1
오스트리아	6.7	뉴질랜드	4.09
독일	6.22	멕시코	3.96
벨기에	5.49	포르투갈	3.75
덴마크	5.06	러시아	3.65
영국	4.93	프랑스	2.31
네덜란드	4.72	이탈리아	1.73
호주	4.56	일본	1.72
스페인	4.52	중국	1.5

자료: WHO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2011'; KALIA

2.2.2. 실소비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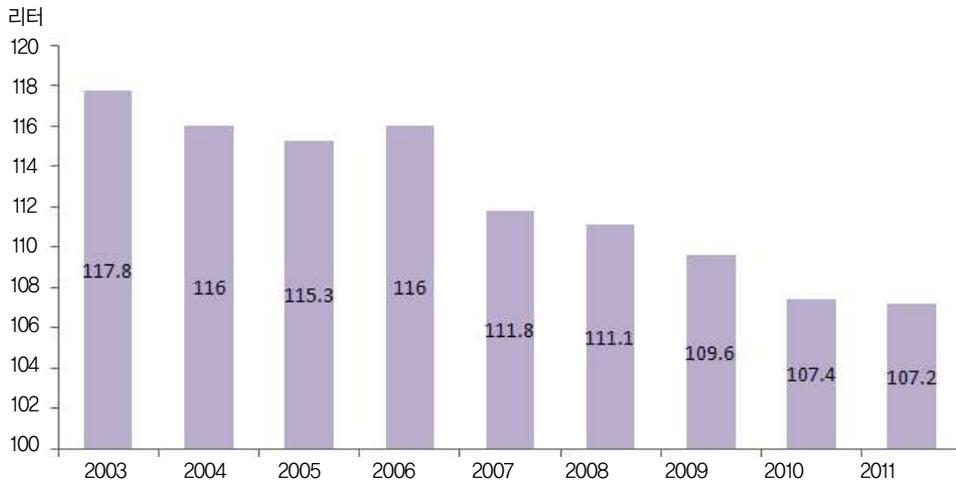
독일 국민이 실제로 마시는 맥주의 양은 1인당 107.2리터(2011년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만큼 맥주의 소비량도 많은 국가이지만 최근 맥주

1) 세계보건기구는 주기적으로 국가별 알코올 소비량을 측정, 공개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자료는 2011년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2011로 국가별 알코올 소비량은 2005년을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 소비량이 차츰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맥주가 전체 주류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맥주소비량은 곧 전체 술 소비량과 직결된다. 최근까지의 맥주소비 감소세로 인해 전체 1인당 소비량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독일에서 소비된 맥주는 총 9,600만 헥토리터로 2006년 1억 리터가 넘게 소비된 수준과 비교할 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1인당 맥주소비량을 보면 2006년 약 116리터를 기록한 이후 최근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의 특수효과가 맥주소비증가로 나타난 이래 지난 5년간 맥주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이다.

그림 6 독일의 1인당 맥주 실소비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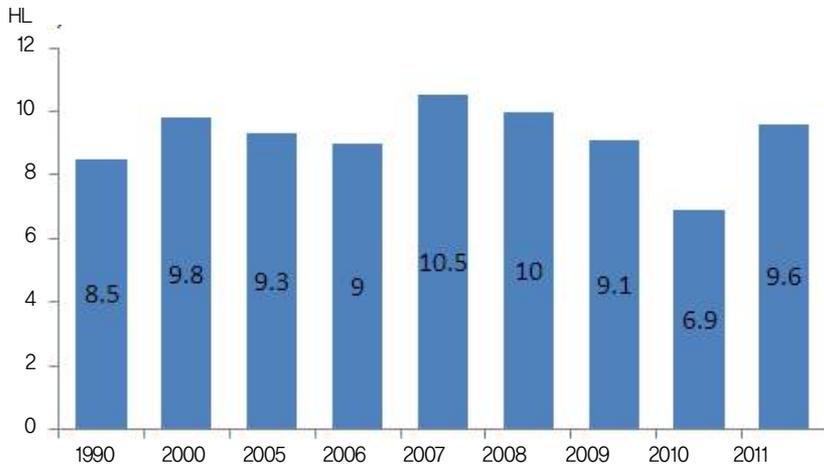
자료 : Deutsch Bier Institut(2013)

3. 와인 공급 및 소비 동향

3.1. 와인생산 연망

독일의 와인생산량은 연간 9.6헥토리터(2011년 기준) 수준으로 맥주 생산량의 10%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와인생산량은 대체로 등락을 거듭하며 연간 9헥토리터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2008년에 생산량이 각각 10헥토리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나 맥주소비량이 많은 독일에서 좀처럼 와인생산량은 크게 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7 연도별 와인생산량



자료 : Deutsches Weininstitut

전 세계에서 와인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프랑스로 독일와인보다 평균 5배 높게 생산되고 있다. 지난 1990년부터 주요국의 와인생산 수준은 크게 변한 것이 없이 최근까지 유지되는 상황이다. 독일은 맥주생산량이 많으나 와인강국으로 알려진 칠레보다 연간 와인 생산량이 많다.

표 3 주요국 와인생산량

단위: HL(헥토리터)

국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독일	칠레	호주
1990년	65.5	54.8	38.6	15.8	8.5	4.0	4.1
2000년	57.5	51.6	41.7	23.3	9.8	6.4	8.1
2005년	53.3	50.6	41.1	22.9	9.3	7.9	14.0
2006년	52.5	53.4	38.1	19.6	9.0	8.4	14.3
2007년	45.4	45.9	34.7	20.0	10.5	8.2	9.6
2008년	41.6	47.0	36.0	19.3	10.0	8.7	12.1
2009년	46.3	47.4	35.1	21.9	9.1	10.1	11.7
2010년	45.7	48.5	35.2	20.9	6.9	9.9	11.2
2011년	49.6	41.6	34.3	18.7	9.6	9.2	11.0

자료 : Deutsches Weininstitut.

3.2. 와인소비 현황

3.2.1. 순알코올 소비량 기준

독일의 와인 소비는 맥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순알코올 소비량을 기준으로 와인 소비량을 살펴보면 2005년 1인당 연 3.15리터로 나타났다(WHO, 2011). 독일은 호주(3.12리터)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인별 와인소비가 나타나고 있다. 독일보다 와인소비량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 8.14리터, 이탈리아 6.38리터, 영국 3.53리터 등으로 나타났다. 칠레는 2.59리터, 캐나다는 1.5리터, 미국은 1.36리터로 독일보다 와인소비량이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표 4 2005년 WHO 주요국 1인당 와인 소비량

WHO 가입국	맥주기준 알코올소비량(리터)
프랑스	8.14
포르투갈	6.65
이탈리아	6.38
스위스	5.10
스페인	3.59
영국	3.53
독일	3.15
호주	3.12
뉴질랜드	3.04
칠레	2.59
캐나다	1.50
미국	1.36
일본	0.29
중국	0.15
러시아	0.10

자료: WHO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2011' ; KALIA

3.2.2. 일소비량 기준

독일 국민이 실제로 마시는 와인의 양은 2011년 기준 1인당 24.3리터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은 맥주의 소비량이 높고 와인, 증류주 등의 소비량은 높지 않다. 와인은 독일

에서 꾸준히 소비되는 주류이다. 맥주는 최근 감소세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와인은 약 10년 간 1인당 24리터를 전후하여 소비량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 별 1인당 와인 실소비량을 보면 2003년 23.6리터가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까지 24리터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와인시장은 꾸준히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와인 뿐만 아니라 스파클링 와인도 매년 소비량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독일의 1인당 와인 실소비량 변화



자료 : Deutscher Wein Statistik 2012/2013

4. 증류주 소비동향

4.1. 순알코올 소비량 기준

독일의 증류주 소비량은 맥주, 와인보다 낮은 수준이다. 순알코올 소비량을 기준으로 증류주의 소비량을 살펴보면 2005년 기준 1인당 연간 2.3리터로 나타났다(WHO, 2011). 독일의 증류주 소비량은 유럽국가 내에서 높은 수준이 아니다. 독일보다 증류주 소비량이 높은 국가는 러시아 6.88리터, 일본 3.37리터, 미국 2.65리터, 프랑스 2.62리터, 영국 2.41리터 등으로 독일이 유럽의 주요국보다 증류주에서 섭취하는 1인당 알코올양은 낮은 수준이다. 캐나다는 2.1리터, 네덜란드 1.56리터, 호주는 1.16리터로 독일보다 증류주소비량이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표 5 2005년 WHO 주요국 1인당 증류주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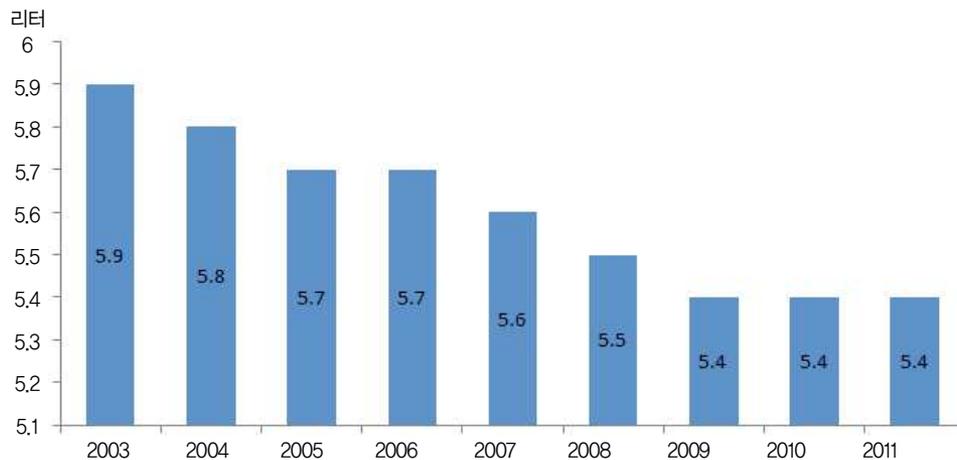
WHO 가입국	맥주기준 알코올소비량 (리터)
에스토니아	9.19
러시아	6.88
태국	4.69
체코	3.59
일본	3.37
미국	2.65
프랑스	2.62
중국	2.51
브라질	2.49
영국	2.41
독일	2.30
캐나다	2.10
네덜란드	1.56
뉴질랜드	1.37
호주	1.16

자료: WHO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2011' ; KALIA.

4.2. 실소비량 기준

독일 국민이 실제로 마시는 증류주의 양은 2011년 기준 1인당 5.4리터를 기록하고

그림 9 독일의 1인당 증류주 실소비량



자료: Deutscher Wein Statistik 2012/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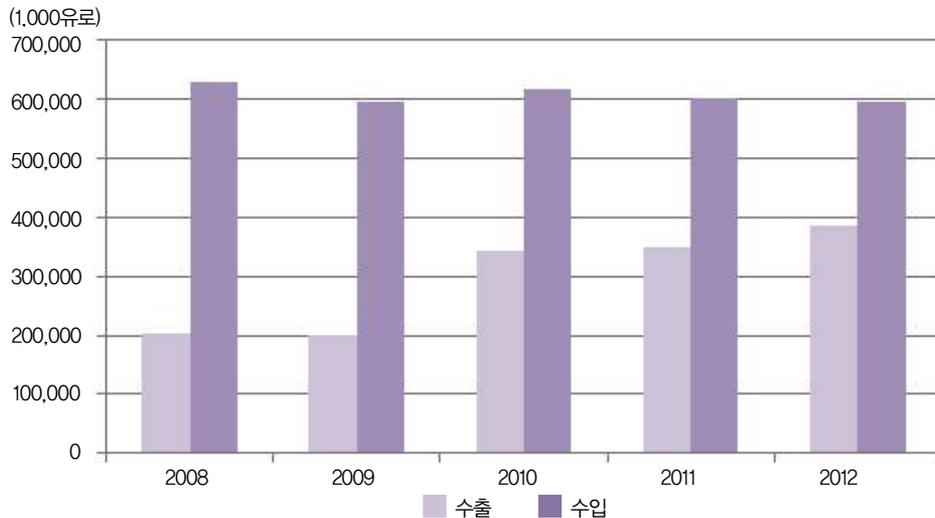
있다. 이는 전체 술 소비량의 4%수준에 해당한다. 증류주 소비량은 지난 약 10년 동안 차츰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량이 많지 않고 감소하는 양도 작은 수준이지만 꾸준히 증류주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다.

5. 주류 수출입 동향

5.1. 맥주

독일은 대표적인 글로벌 맥주 생산국인 동시에 소비국가로 알려져 있다. 자국생산 맥주의 내수소비가 많고, 더불어 수입맥주의 소비량도 많아서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크게 나타난다. 지난 5년간의 맥주 수출입 상황을 보면, 자국의 맥주소비량 감소로 수출이 차츰 활성화되고 있고, 수입량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 독일 맥주의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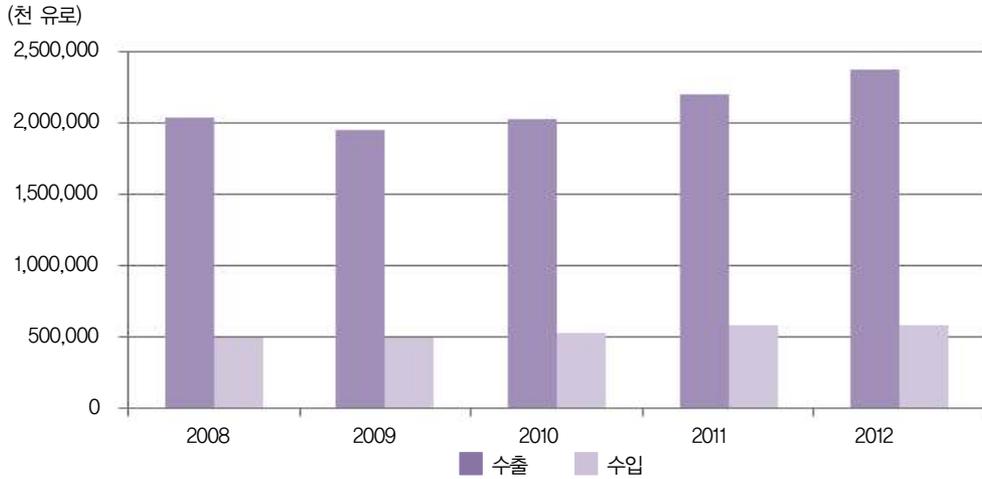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가별 무역통계(2013).

5.2. 와인

독일은 와인의 내수소비가 낮아 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수출이 수입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5년간 와인의 수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수입량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높지 않은 수준이다.

그림 11 독일 와인의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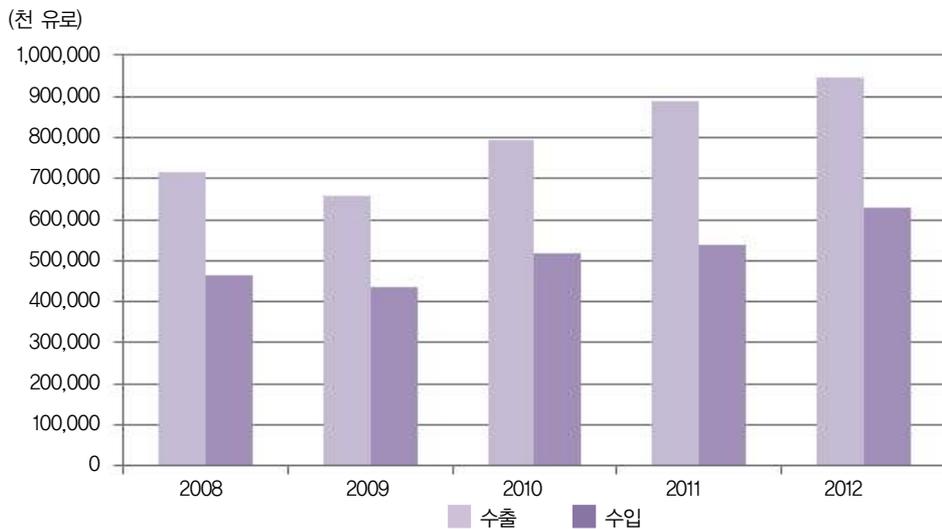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가별 무역통계(2013).

5.3. 증류주

독일은 맥주와 와인에 비해 증류주 소비량이 높지 않아서 수출이 다소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별 자유무역의 확대로 인해 증류주의 수입도 차츰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에 비해 그 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다.

그림 12 독일 증류주의 수출입 현황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가별 통계(2013).

6. 시사점

독일은 맥주소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전체 알코올 소비가 감소하는 가운데 무알코올 주류시장이 다소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맥주제조업체는 맥주소비량 감소 대응전략으로 무알코올 맥주를 출시하여 침체된 맥주시장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독일의 대표적인 맥주 브랜드인 Bitburger는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을 홍보모델로 내세워 무알코올 맥주의 인지도와 상품성을 확대하고 있다(KOTRA, 2013). 맥주의 소비량이 둔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양조장 수는 2004년 1,281개에서 2012년 1,339개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무알코올 맥주 양조장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의 무알코올 맥주양조장 수는 약 200여개에 이르는 수준이며, 전체 맥주시장에서 약 3.5%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독일에서의 무알코올 맥주시장은 둔화된 맥주시장의 출구전략이 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독일의 맥주시장은 현재 대표적인 맥주브랜드가 부족하고, 웰빙 또는 알코올 소비 성향의 변화에 따른 무알코올 음료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일반맥주시장이 축소되고 무알코올 시장이 확대되는 등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맥주가 독일 주류시장의 주력제품임에는 변함이 없다. 향후 독일에서는 무알코올 주류 등 소프트 음료와 물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WHO. 2011.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Deutsches Weininstitut. 2013. 'Deutscher Wein Statistik 2012/2013'
 Barth-Haas Group. 2013 'Hops 2012/2013, page 7'

참고사이트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OECD www.stats.oecd.org
 WHO <http://www.who.int>
 한국주류산업협회 www.kalia.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